이랜드, LA다저스 인수전 뒤엔 박찬호가 있다?

매물로 나온 다저스 1차 예비후보 선정
매각대금 ML 역대 최고 15억달러 추산
최근 이랜드그룹 고위층 박찬호와 만남
단독참여 보다 컨소시엄 형태 가능성 커

의류·유통업체인 이랜드그룹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재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매물로 나온 다저스에 인수 의향서를 냈고 29일 확정된 1차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랜드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했는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일 "최근 이랜드그룹 고위층과 박찬호 선수가 만난 적이 있다. LA 다저스 인수와 연관이 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박찬호와 친분이 깊은 피터 오말리 전 다저스 구단주가 인수전에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최근에도 해외 리조트에 이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에서 통산 6회 우승했고,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이지만 현 구단주인 프랭크 매코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이혼소송,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인해 파산상태다.

이번 인수전은 구단의 가치와 더불어 주요 자산인 다저스타디움 및 주차장을 합쳐 최소 10억달러, 최대 15억달러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메이저리그 구단 매각 사상 최대 금액은 2009년 시카고 컵스의 8억4500만달러다. 그러나 LA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전통의 인기 구단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 이번 인수전이 훨씬 치열하다.

현재 인수전에는 전 구단주이자 다저스를 브루클린에서 LA로 이전한 오말리 가문의 피터 오말리, 뉴욕 양키스와 다저스 사령탑 출신인 조 토리,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 출신 농구스타 매직 존슨이 참여한 컨소시엄 등이 뛰어든 상태다. NBA 댈러스 구단주인 마크 큐반은 1차 관문에서 탈락했다.

이랜드그룹이 어떤 컨소시엄과 손을 잡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메이저리그는 구단주들의 승인 없이는 팀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독으로 입찰했다면 거액을 제시해 교섭권을 따낼 수도 있지만 미국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구단주 승인까지는 일정이 매우 험난하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이랜드가 LA 다저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1994년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한 박찬호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스포츠동아DB

▌LA 다저스는 어떤 팀?

월드시리즈 6회 우승 명문구단 박찬호 친정…한국팬에 더 친숙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소속된 LA 다저스는 박찬호(1994~2001·2008)와 최희섭(2004~2005년), 서재응(2006년)이 몸담은 적이 있어 한국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구단이다. 188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브루클린 애틀랜틱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했고, 1932년부터 브루클린 다저스로 팀명을 바꿨다. 1958년 LA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현재의 팀명을 사용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인기 구단이자 명문 구단으로 월드시리즈에서 6회(1955·1959· 1963·1965· 1981·1988) 우승했다. 우승 횟수로는 30개 구단 중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공동 5위다.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 재키 로빈슨이 1947년부터 1956년까지 활약했으며, 로빈슨의 백넘버는 30개 전 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돼 있다.

홈구장은 1962년 개장한 다저스타디움. 5만6000명의 메이저리그 최대 수용 인원을 자랑하는 구장이다. 이곳에서 2009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베네수엘라의 준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이 펼쳐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onga.com 트위터 @united97intl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여기는 두산 애리조나 캠프

▲ '벌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푸시업은 전신운동이에요.' 두산의 임태훈이 미국 애리조나 피오리아의 스프링캠프에서 푸시업으로 몸을 풀고 있다.

▲'나도 수비할 땐 날렵하다고!' 두산 최준석이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수비훈련에 한창이다. 타구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 '강률이 볼 좋네!' 두산 권명철 투수코치(뒤쪽)가 포수 양의지의 뒤에서 김강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사진 제공 | 두산 베어스

악바리 멘토 이종욱 처럼 김재호 몸도 짱, 마음도 짱

'절친들의 몸짱, 마음짱 프로젝트 시작!' 두산 이종욱(왼쪽)이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룸메이트이자 절친한 후배 김재호의 웨이트트레이닝을 돕고 있다. 사진 제공 | 두산 베어스

'몸짱'에 '마음짱'까지 노린다. 두산 이종욱(32)과 김재호(27)가 애리조나 전지훈련에서 몸과 마음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캠프 룸메이트이기도 한 이들은 정규훈련 외에도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혹독한 담금질중이다.

김재호는 "4년 전부터 비시즌 때 (이)종욱이 형과 운동을 함께 했다"며 "올해도 변함없다. 형이 식스팩을 만든다고 해서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근강화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허리와 복근이 강해지면 타구를 순간적으로 판단해 민첩하게 움직여야하는 수비수로서 순발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

이뿐 아니다. 김재호는 이종욱의 조언에 힘입어 '마음짱'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그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특히 파이팅을 가장 강조한다"며 "형도 내성적이었는데 그라운드 위에서 일부러 크게 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뛰었더니 야구가 잘 됐다고 경험에 빗대 말을 해줬다. 많이 배우고 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후배가 좀 더 강인해지길 바라는 선배가 이끌고, 이를 본받고자 하는 후배가 따르는 훈훈한 캠프풍경이다. 홍재현 기자

투구수 변화구 몸무게…늘려야 사는 남자 이용찬!

▌선발투수 안착 캠프 과제

두산 이용찬(23·사진)이 2012년 선발로 거듭나기 위해 3가지 캠프 과제를 받아들었다. 첫째는 투구수, 둘째는 변화구, 셋째는 몸무게 늘리기다.

그는 30일(한국시간) "지금까지 불펜피칭을 4번 했고, (투구수는) 50개까지 던졌다"며 "전지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개수 늘리기"라고 밝혔다. 물론 쉽진 않다. 지난 시즌 초반까지 그의 보직은 중간계투였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은 마무리로서 짧은 이닝만을 소화했다. 지난해 선발로 전환해 제 역할을 했지만 경기당 투구수를 100개로 끌어올리다가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 그는 "코치님들도 긴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 투구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아직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지만 훈련일정(4일 훈련·1일 휴식)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100개까지 던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는 볼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변화구 장착이다. 지난해 그의 주무기는 포크볼이었다. 올해는 여기에 슬라이더를 추가한다. 그는 "직구와 포크볼 외에 슬라이더를 승부구로 만들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도 슬라이더가 잘 들어가는 날 경기가 잘 풀렸다. 가지고 있는 구종을 더 늘리기보다 슬라이더, 커브 등을 가다듬어 위력을 키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늘린다. 마무리투수일 때 그의 체중은 92kg이었다. 그러나 선발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급격하게 빠졌고, 캠프로 떠나기 직전 몸무게를 90kg까지 늘렸지만 캠프에서 다시 87kg으로 줄었다. 그는 "체중 증감과 상관없이 몸 상태는 좋다. 하지만 마무리를 할 때의 체중과 근접하게 올리고 싶다. 그래야 공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스프링캠프 24시

삼성, 내달 4일 첫 자체 청백전

●…괌에서 훈련 중인 삼성은 2월 4일 첫 자체 청백전(7이닝)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본격적인 실전 담금질은 2월 8일부터 시작될 오키나와 2차 캠프 때 이뤄진다. 30일 팬북 제작팀이 괌에 도착해 31일에는 선수단 단체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다.

또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된 하루 3차례 훈련을 31일에는 오후·야간에만 실시한다.

쇼핑에 빠진 넥센 선수단…꿀맛 휴식

●…한국 프로야구 선수단이 미국 애리조나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넥센 선수단은 30일(한국시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운동화' 쇼핑을 즐겼다는 후문.

전날 휴일이었던 KIA 선수단도 신발쇼핑에 열을 올렸다고 알려져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농담을 건넸다.

넥센 박정준 오늘 현역입대

넥센 박정준(사진)이 31일 오후 2시 전주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박정준은 5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